

보도시점 2025. 4. 1.(화) 11:00
4. 2.(수) 조간

배포 2025. 4. 1.(화) 09:00

사육·운송·도축 단계별 관리 매뉴얼로 소 근출혈 발생을 낮춘다

- 한우협회, 축산물처리협회 등 이해관계자 대상 근출혈 예방 매뉴얼 배포
- 축산 종사자 교육, 마이스터대학, 한농대 학과과정과 연계한 교육 실시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농식품부)는 소고기의 품질 향상을 위해 소의 근출혈 발생을 낮출 수 있도록 「사육·운송·도축 단계별 근출혈 저감 관리 매뉴얼」을 배포한다고 밝혔다.

* 소 근출혈 : 근육내의 모세혈관 파열로 혈액이 흘러나와 근육속에 혈점이 발생하는 현상

농식품부는 지난해 근출혈 발생원인,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, 축산물품질평가원(이하 축평원), 전국한우협회 및 축산물처리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근출혈 저감 매뉴얼을 마련하였다.

또한, 축평원의 축산종사자 교육과 함께 마이스터대학 및 한국농수산대학교의 학과과정과 연계한 전문교육을 통해 소 근출혈 저감방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.

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“소 근출혈 저감을 위해서는 각 단계별 종사자의 매뉴얼 실천이 중요하며, 농가와 유통업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교육 등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붙임 사육·운송·도축 단계별 관리 방안(매뉴얼 발췌)

담당 부서	축산정책관실 축산유통팀	책임자	팀 장	전익성 (044-201-2371)
		담당자	사무관	한병 윤 (044-201-232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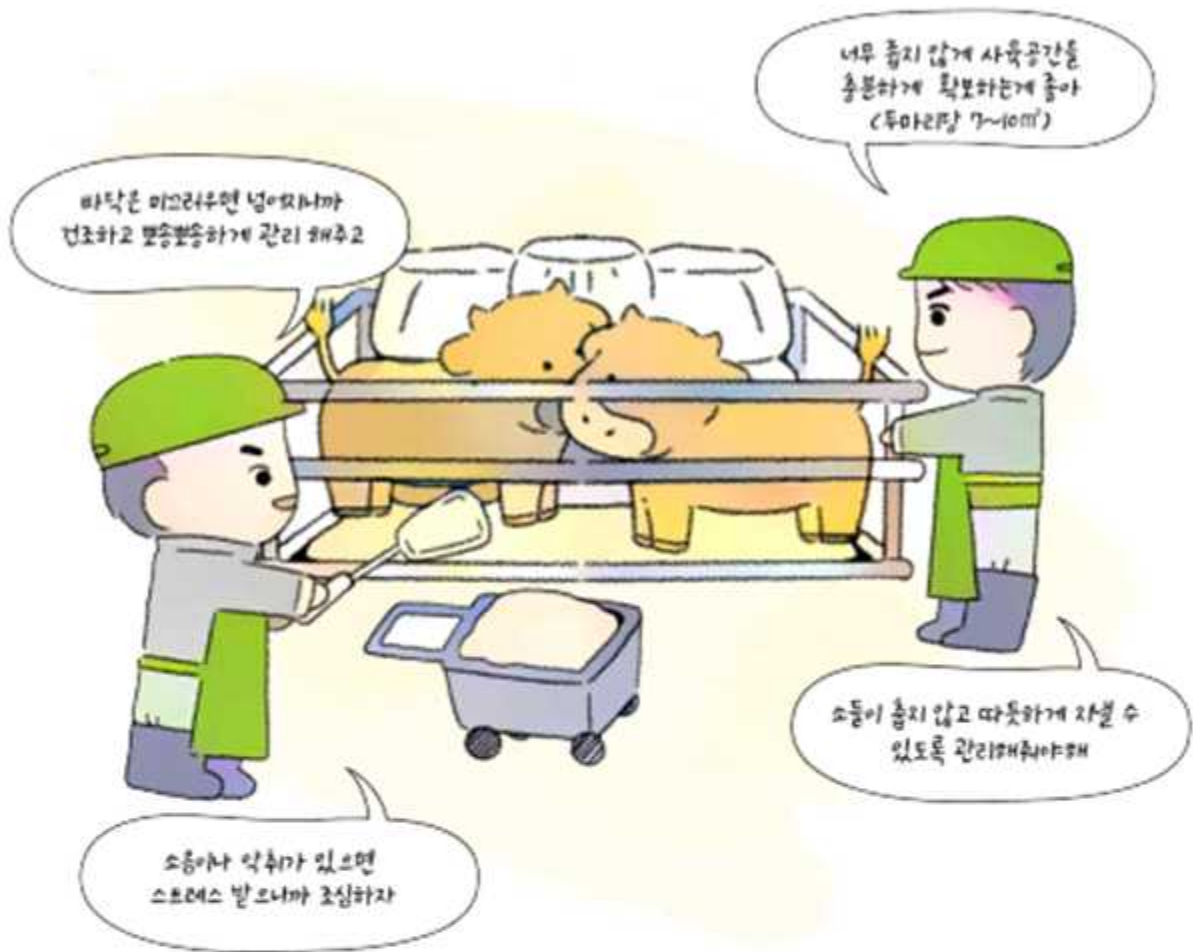
1. 사육단계 - 영양관리와 사료급여



| 영양관리와 사료급여에 대하여 |

- 혈관의 신축성 향상을 위한 비육중기 이후 비타민C 50g/일 급여
- 출하 전 염분급여 제한으로 혈압 상승 억제
- 육성기 양질 조사료의 충분한 공급으로 균형잡힌 영양상태 유지
- 비육기 농후사료 집중·과다 급여 금지로 간기능 저하 예방
- 사료 교체시 스트레스 적응을 위해 점진적 교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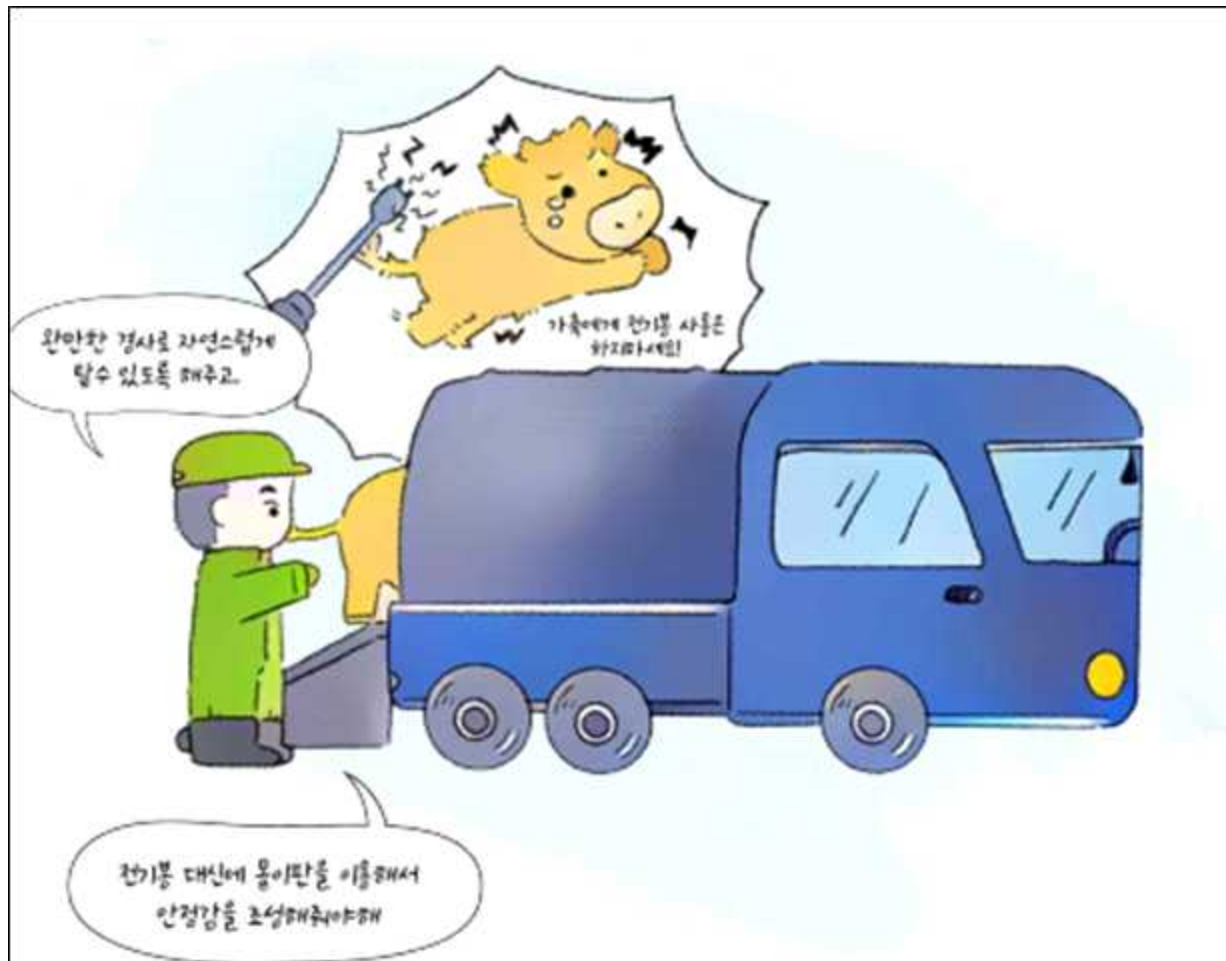
2. 사육단계 - 사육환경



| 사육환경에 대하여 |

- 건조하고 미끄럽지 않은 우사 바닥 관리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
- 우사별 밀식 사육 금지(두당 7~10m² 확보)
- 혹한기 혈관 수축 방지를 위한 온열대책 마련
- 소음, 냄새, 진동 등 스트레스 발생 요인의 제거

3. 출하 - 상·하차



| 상·하차에 대하여 |

- 가축 물이막을 이용해 주변 시야 차단으로 안정감 조성
- 완만한 경사의 상차계단을 사용해 자연스러운 이동과 낙상 예방
- 전기봉 사용을 통한 강제 이동 금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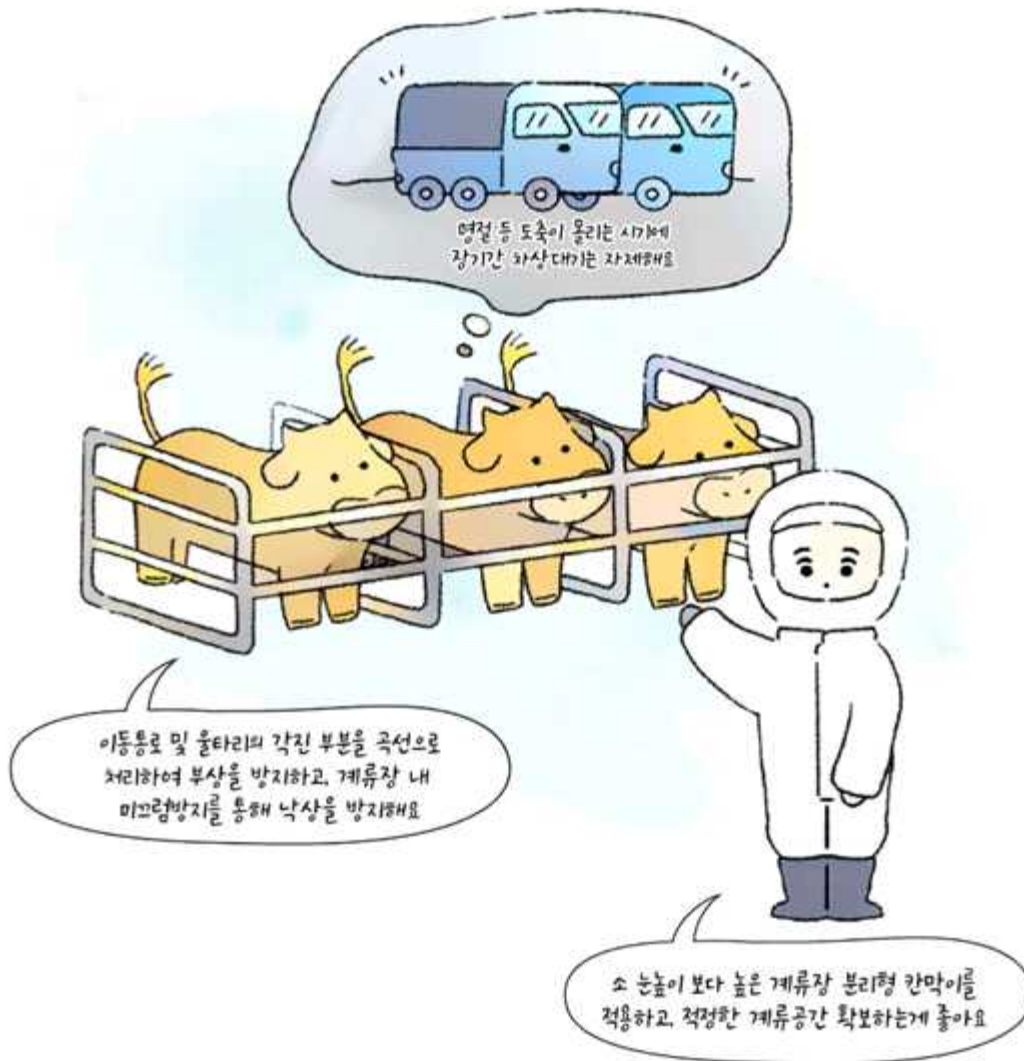
4. 출하 - 수송



| 수송에 대하여 |

- 출하 직전 절식과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가능하도록 조치
- 차량 적재함의 칸막이(천막) 등으로 외부 노출 최소화
- 급출발·급감속 등 난폭운전 금지
- 가축수송 전용차량과 경험이 많은 운전기사 활용
- 가축 이동시 적절한 운송·적재 밀도 관리($1.3 \sim 1.6\text{m}^2/\text{두}$)
- 장기간 운행시 충분한 휴식 및 수분 공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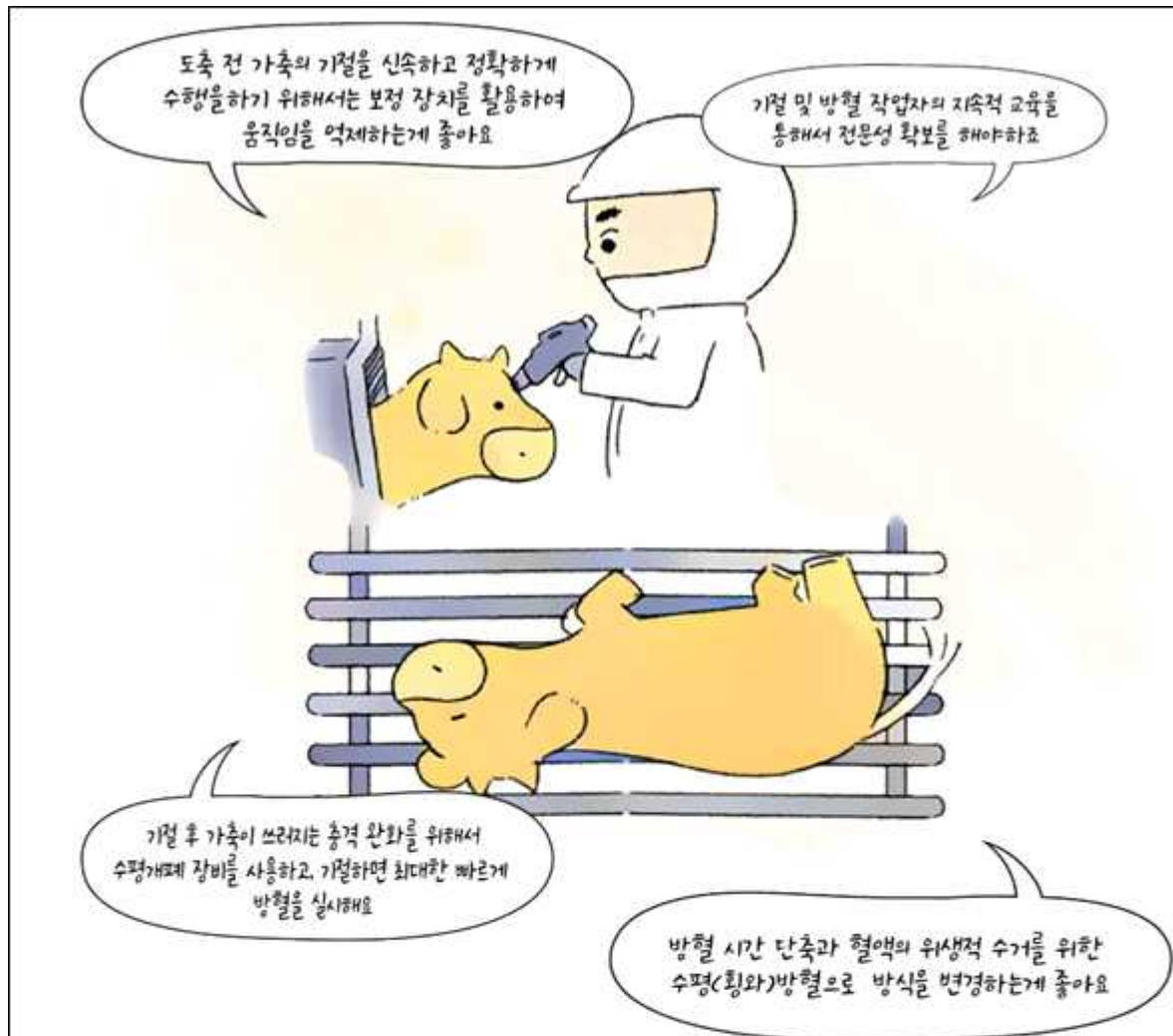
5. 도축 - 계류환경



| 계류환경에 대하여 |

- 명절 등 도축이 몰리는 시기에 장기간 차상대기 금지
- 이동통로 및 울타리의 각진 부분을 곡선으로 처리하여 부상을 방지
- 계류장 내 미끄럼방지를 통해 낙상 방지
- 계류장 분리형 칸막이 적용(소 눈높이 보다 높게 설치)
- 적절한 계류공간 확보(4.9m²이상/두)

6. 도축 - 도축과정



| 도축공정에 대하여 |

- 도축 전 실신·기절은 적절한 강도로 정확하게 수행
- 실신·기절시 보정장치를 활용하여 가축의 움직임을 최대한 억제
- 실신·기절 후 쓰러지는 충격 완화를 위한 수평 개폐장치 활용
- 실신·기절 이후 방혈은 1분 이내로 최대한 빠르게 실시
- 방혈시간 단축과 혈액의 위생적 수거를 위한 수평방혈 적용
- 타격 및 방혈 작업자의 지속적 교육으로 전문성 확보